

## 나팔꽃과 전나무

김 병 철 (한양대학교 응용화공생명공학부)

요즘 교육부와 서울대학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의 업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혹자는 학력에 콤플렉스를 가진 정치권의 모 인사가 학력의 상징인 서울대를 보복적으로 말살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 비난하고 혹자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지책이라 항변한다. 솔직히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우수한 인재가 길러져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쟁은 여러 사회단체가 자기 이익을 쫓아 주장하는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국가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등한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른 아침 맑은 햇살을 받아 피는 나팔꽃은 애잔하도록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 나팔꽃을 “아침의 영광”이라 불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나팔꽃은 집을 꾸미는 치장용 재료는 될 수 있어도 집을 짓는 기초재료는 될 수가 없다. 반면 툰드라의 추운지방에서 서식하는 전나무는 생존을 위한 햇빛을 받기 위해 하늘로만 치솟아 무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집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집을 짓는데 있어서 나팔꽃도 필요하지만 전나무가 없는 집을 짓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얕은 상식과 판단력이 학력변별의 기준이 되어 있는 현 고등학교 교육에서 우리는 전나무가 될 튼튼한 기초를 가진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과학 기술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교육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정부기관이 결과 및 업적 평가에 있어서 SCI 논문이나 언론 광고 효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창의적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할 대학교육에서 조차 교수들의 연구방향을 첨단이라는 미명하에 기발하고 환금이 용이한 테마로 몰아가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소위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류에 따른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를 제안해야 하고,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제안하는 상당 부분의 연구과제조차 기초연구보다는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연구비를 빌미로 대학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해온 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빈약한 기초위에 아름답고 거대한 성을 쌓고 있고 대학 교육에서 기둥이 되어야 할 많은 분야가 소위 비인기 분야로 치부되어 고사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발한 연구테마에 익숙하게 길들여지는 학생들은 우선은 나팔꽃처럼 예쁘고 관심을 끌지 모르나 이들이 장래에 몸담을 산업에서 전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고분자학회의 창립에서 지금까지의 발전상을 반추해보면 고분자학회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을 선도한 엄청난 에너지의 분출을 유발시켰고 국가 및 기업의 발전에 크게 일조하였음을 일목 하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일취월장에도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학회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테마의 변화 속도와 방향이다. 물론 산업 간의 교류가 커지고 복합적인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interdisciplinary 또는 fusion science 또는 technology가 우리의 미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에서 발표하는 많은 논문에 교수의 고전적 특색이 묻어나는 기초적 과학 논문이 너무나 빨리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과학과 기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과학은 인간의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생긴 이상적 학문이고 기술은 인간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기 위해 생긴 현실적 직업의 본질이다. 전자는 전나무의 특성이 강한 분야이고 후자는 나팔꽃의 특성이 강한 분야이다. 공학이나 이학에서 과학이 반드시 기술을 선

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둘의 어느 한쪽도 등한시할 수는 없으나 대학에서의 교육이 너무 기술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호기심이 사라진 이공학인의 미래는 그 자체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진 이학 및 공학인들은 현재의 국가의 과학 기술 정책의 비합리성과 국가기관과 대학간의 불화를 시니컬하게 비아냥대거나 그 정책을 폄하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신진 이공학인들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기초를 다져 주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초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테마 개발과 이를 정부 및 사회에 설득시키기 위하여 이공학인들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부정적인 업보를 갚는 길이며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튼튼한 주춧돌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래서 우리 고분자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도 신문의 지면을 화려하게 하는 장식하는 나팔꽃과 같은 연구결과와 더불어 전통 기반의 기술을 견인하고 새로운 이공학의 근본적 원리를 창출하는 전나무와 같은 연구결과와 발표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